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7월 28일
제2011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요한 6,11-13)



〈빵과 물고기의 기적〉, 후안 데 플란데스

연중 제17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나해)

제 1 독 서 2열왕 4,42-44 | 먹고도 남을 것이다.

화 답 송 시편 145(144) |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 2 독 서 에페 4,1-6 |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 음 요한 6,1-15 |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때에¹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²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³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⁴ 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⁵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⁶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⁷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⁸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⁹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¹⁰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¹¹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¹²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¹³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¹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¹⁵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복음 묵상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가진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장정만도
 오천 명’쯤 되는 인원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가져온 보리 빵 스무 개와
 햇곡식 이삭 자루를 바라보며 엘리사의 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독서와 복음에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 배부르게
 먹고도 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이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음식으로 빵의 기적을 이루셨고,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생명을 나누는 빵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성체를 모실 때마다 미사 때 선포된
 하느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빵”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아멘.

(김재덕 베드로 신부)

제4차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전대사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이미 7월 넷째 주일로 제정하시어 올해 “다 늙어 버린 이때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시편 71[70],9 참조)를 주제로 거행될 제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이 최근에 제출한 청원을 들으신 교황 성하께서 하느님의 섭리로 본 내사원에 부여하신 특별 권한에 힘입어,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복돋우려는 목적에서, 2024년 7월 28일 제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전 세계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예식에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조부모, 노인, 모든 신자에게,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대리 기도의 형태로 적용될 수 있는 교회의 천상 보화인 전대사를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은혜로이 수여한다.

이 자비의 법정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외로운 이들, 장애인들)을 방문하여 충분한 시간을 보낸 신자들에게도 같은 날에 전대사를 수여한다.

마찬가지로, 연로한 병자와 그들을 돕는 이들과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가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슬픔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내사원은, 교회의 묶고 푸는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 목자의 사랑으로 더욱 쉬워지도록, 고백을 들을 적법한 특별 권한을 갖춘 사제들이 너그럽고 준비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거행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제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

성실하신 주 하느님,
하느님의 모습으로 저희를 창조하시어
한시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때마다 저희 삶에 함께하시니
저희를 저버리지 마시고 돌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성령께서 저희를 하느님의 자애로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소서.
“저는 당신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형제애의 기쁨을 잃지 않고
혼자라는 슬픔에 함께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외로움 없는 날이 되어
하느님 평화의 첫 열매로
풍요로운 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 자료 출처: <https://cbck.or.kr/Notice/20242281?gb=K1200>



1 병자 영성체

- 일시 : 8월 2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2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8월 3일(토) 오전 10:30 (첫 토요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 신심 미사로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3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8월 4일(일) 오전 11:30 (B-1,2)

4 대부모 대자녀 프로그램

- 일시 : 8월 4일(일) 오전 11:15 (A-1)
- 예비자들과 함께 친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이성근 에레미야 (703) 627-1932

5 첫 목요 기도회

- 일시 : 8월 6일(화) 오후 7:30 (성당)
- 강사 : 박호성 요셉 (앵커리지 한인 성당 주임)
- 8월 첫 목요 기도회는 화요일로 변경되어 실시됩니다.
- 묵주기도와 성체 현시, 찬미와 미사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하늘로 들어올려진 것을 기념하는 대축일 미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축일 미사 : 8월 15일(목) 오후 7:30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7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일시 : 8월 9일(금) 오후 3시 - 8시, 8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본당
- 대상 : Rising 1st grade - 8th grade
- 등록 : 본당 입구, 주일 2시 미사 후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 늦게 등록하면 원하는 티셔츠 사이즈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레위기 19, 32)

8 2024 - 2025년 CCD 조기 등록

- 대상 : 유치부(K) - 8th grade
- Early Bird Discount : 한 자녀 \$90 / 두 자녀 \$160 세 자녀 이상 \$180
- 등록 : Google Form / 접수양식(하상관 교무실), 8월 4일까지 (8월 5일 - 9월 15일은 할인 적용 안됨)
- 9월 15일(일) 이후 등록은 안 받습니다.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9 2024 - 2025년 CYO 조기 등록

- 대상 : 9학년 - 12학년
- Early Bird Discount : 한 자녀 \$90 / 두 자녀 \$160 세 자녀 이상 \$180
- 등록 문의 :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10 다민족 공동체 미사

- 알링턴 교구 버킷지 주교님 미사 집전
- 일시 : 8월 16일(금) 오후 6:30
- 장소 : Saint Mary of Sorrows Catholic Church
미사 후 리셉션(다민족 음식, 공연)
- 교구에서 다민족 공동체들에 대한 관심으로 해마다 열리는 미사입니다. 알링턴 교구 소속의 한인 본당이라 칭하며 행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구에 대한 소속감을 신앙으로 드러내는 모습일길 칭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민족 공동체 미사를 위한 성가대 협조 : 성가대원들과 성가에 관심있는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성가 연습 : 7월 24일(수), 29일(월), 8월 7일(수), 8월 14일(수) 오후 7시 (Saint Mary of Sorrows Catholic Church)

공지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는 어느 성당이든, 어떤 미사든 상관없습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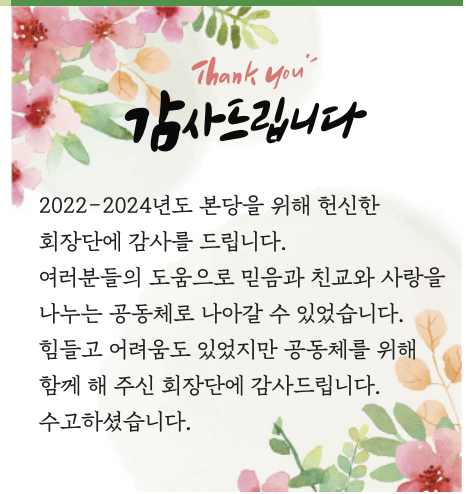
FIND A MASS near me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2022-2024년도 본당을 위해 헌신한 회장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믿음과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해 주신 회장단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07/28 이번 주 센터빌 2구역

08/04 다음 주 센터빌 3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7월 21일 (연중 제16주일)

봉헌금	\$ 6,797.00
교무금	\$ 6,030.00
교무금(신용카드)	\$ 2,480.00
감사 헌금	\$ 710.00
2차 헌금	\$ 25,616.00
온라인 봉헌	\$ 3,680.00
합계	\$ 45,31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보으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8월 1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8월 2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8월 4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교회미술 2천년 : [제 5강]
중세 고딕성당 읽기 (1)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